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8, pp.175-215
<https://doi.org/10.29212/mh.2023..128.17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러일전쟁 직전 베조브라조프의 극동정책과 러일협상*

이향준 |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 목 차
1. 서론
 2. 극동총독부 설치 이전 베조브라조프의 극동정책과 압록강삼림회사
 3. 러일전쟁 직전 베조브라조프의 러일협상 개입과 러일동맹 구상
 4. 결론

초 록 베조브라조프는 압록강삼림회사의 주주를 구성하여 황실 세력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니콜라이 2세의 후원 아래 러시아 극동 정책을 추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했다. 그는 압록강삼림회사가 한국 북부와 만주, 압록강과 두만강 하구의 영역을 관리하는 동시에 한국에서 일본과 러시아 사이 방벽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베조브라조프는 러시아의 극동정책을 황제에게 직접 제안했고, 그 승인을 받아 움직였다. 특히 1903년 8월 일본의 러일협상 제안에

대한 러시아의 답변안 작성에서 니콜라이 2세는 한국에서 일본의, 만주에서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규정할 때 ‘유사한’이란 단어를 삽입하도록 명령했다. 이것은 한국과 만주문제의 연관성 및 베조브라조프와 니콜라이 2세가 직접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베조브라조프는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하고 한국을 보호령으로 만드는 장기적인 계획을 지지했지만 러일협상의 마지막 순간에 ‘러일동맹’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만주를 점령하지 않고 한국의 독립을 유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만주 점령과 한국 보호령’이라는 강경정책에서 ‘러일동맹’이라는 유화정책으로 급격히 전환한 것은 한국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 그리고 러일동맹을 통해 극동에서 영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전략이었다.

그러나 베조브라조프는 외교협상에서 일본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하여 러일협상의 실패에 기여했다. 일본은 베조브라조프의 러일협상 대응 방안의 변화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는 동시에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 고무라는 러시아가 러일협상을 지연하면 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일본정부는 2월 4일 전쟁을 결정했다. 그것은 러일개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일본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주제어 : 베조브라조프, 극동총독부, 압록강삼림회사, 러일협상, 러일전쟁

(원고투고일 : 2023. 4. 9, 심사수정일 : 2023. 8. 18, 게재확정일 : 2023. 8. 29.)

1. 서론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Л. Н. Толстой, 1828-1910)는 러시아의 병사들이 어쩔 수 없이 러일전쟁터로 끌려가는 현실을 고발했다. 많은 예비병사는 러일전쟁이 러시아인에게 필요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전쟁 지역인 극동의 현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도살장의 양처럼 죽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우리가 용암포(Юнампо) 어딘가에서 죽거나 불구가 될 것이다’라고 추측했다.¹⁾ 그 용암포는 바로 한국의 북부지역이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인이 러시아 황실을 위해서 만주와 한국에서 자행한 기행과 약탈을 옹호하다 죽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낫선 삼림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투기꾼의 괴이한 사업을 위해서 러시아 민중 전체 노동의 산물인 수백만의 큰 자금이 허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²⁾ 톨스토이가 지적한 용암포, 한반도의 삼림 등은 바로 한국의 북부지역에 실행된 ‘압록강삼림회사’였는데, 그 기획자는 바로 국무고문 베조브라조프(А. М. Безобразов)였다.³⁾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 총서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0-KSS-1220001)

1) Толстой ЛН Одумайтесь!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143-144.

2) Толстой ЛН Одумайтесь!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136-138.

3)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 베조브라조프(Александр Михайлович Безобразов)는 1873년 러시아 황실 군사학교인 파제스키 코르пус(Пажеский корпус)를 졸업한 후 러시아 황실 소속 근위기병연대(Кавалергардский п

기존 연구성과는 극동정책 주도세력으로 황제(Николай II), 재무대신 비테(С. Ю. Витте), 국무고문 베조브라조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러시아의 대외정책을 설명했다.⁴⁾ 하지만 전체

olk) 장교로 근무했다. 그는 1876년 근위기병대 중위, 1879년 근위기병대 대위로 임명되었다. 1881년 황제에 대한 테러를 진압하는 비밀조직 '신성친위대(Святой дружины)'의 주요 멤버로 활약했다. 1882년 친위대 예비군으로 편입되었다. 같은 해 베조브라조프는 황실 수렵국(狩獵局)에 근무하면서 수렵국장대리(狩獵局長代理)로 활동했다. 1886년부터 1888년까지 동시베리아 총독 이그나치예프(А. П. Игнатъев)의 특별보좌관(чиновник особых поручений)으로 근무했다. 1898년 7월 27일 4등문관(действительный статский советник)으로 임명된 동시에 퇴직했다. 1903년 5월 6일 국무고문(статс-секретар), 1903년 10월 15일 극동특별위원회 위원(состав Особого комите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으로 임명되었다. 러일전쟁 이후 퇴직했고,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파리로 망명했다(Формулярный список А.М. Безобразова // РГИА. Ф.1409. Оп.9. Д.11 : И.Ф. Лукоянов. Не о стать от держав. Росс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конце XIX начале XX вв. СПб. : Нестор-История, 2008, СС.495-500 ; https://ru.wikipedia.org/wiki/Безобразов,_Александр_Михайлович).

- 4) 러시아의 정치세력 관련 연구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로마노프는 비테 대 베조브라조프의 대립이라고 주장했다(Б. А. Романов. Россия в Манчжурии(만주에서의 러시아) 1892~1906. Л. 1928, С. 22). 이후 로마노프는 '베조브라조프 도당' 대 '삼각편대'(비테-람즈도르프-쿠로파트킨)라고 주장했다(Б. А. Романов. Очерк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러일전쟁의 외교사적 개관). 1895~1907. М. 1947, С. 96). 아바린은 산업은행자본가 대 군사산업자본가의 대립이라고 주장했다(В. Я. Авари н. Империализм в Манчжурии(만주에서의 제국주의). М. 1931. С.35). 나로츠니츠키는 군사그룹 대 비테와 람즈도르프의 대립이라고 주장했다(А. Л. Нарочницкий. Обострение борьбы за раздел мира между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ими странам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871~1898 гг.)(극동에서 자본주의 국가 간의 세계 분할을 위한 투쟁의 첨예화)//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극동에서의 국제관계). Т. 1. М. 1973. С.180). 이그나치예프는 궁중인물, 명문모험가 베조브라조프 대 비테와 람즈도르프라고 주장했다(А. В. Игнатъев. С. Ю. Витте-дипломат(외교관 비테). М. 1989, С.171). 이그나치예프와 밀리호프는 황제의 개인적 역할이 성장했다고 주장하여 황제권에 주목했다(А. В. Игнатъев и Г. В. Мелихов.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планах и политике России. Происхождение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러시아의 계획과 정책에서 극동. 러일전쟁의 기원)//Истор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и России. Конце 19-начало 20 века(19세기 말 20세기 초 러시아의 외교정책사). М. 1997. С.162). 서구학자 중 말로제모프도 극동에 대한 '뉴코스'

주의 시기 황제를 관료와 동일한 위상으로 설정하고 대립한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못하다. 당시 러시아 정계는 황실세력과 관료세력이 상호 대립하고 있었다.⁵⁾ 황실세력과 관료세력은 1903년에 열린 특별회의와 여순(旅順)회의에서 러시아의

정책을 실행하는 데서 황제의 주도권을 강조했다(A. Malozemoff, Russian Far Eastern Policy 1881~1904.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8; Andrew Malozemoff 저, 석화정 역,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지식산업사, 2002, 333~349쪽). 국내에서는 최덕규가 동아시아 정책의 주도권 장악에 대해 신권(비테) 대 황제권(니콜라이 2세)의 대립관계라고 주장했다(최덕규, 『대한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1896~1906)』, 『한국과 러시아관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1, 5~9쪽). 루코야노프는 로마노프를 계승하여 러시아의 정치세력을 베조브라조프 그룹 대 삼두정치 세력으로 구분했다. 루코야노프는 브리네르(Ю. И. Бринер)의 압록강 이권을 중심으로 베조브라조프 그룹(Безобразовкая группа)이 형성되었다고 규정했다(И. Ф. Лукоянов. Не оставь от держав: Россия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конце 19 - начале 20 вв. Нестро-История. СПб, 2008, СС.414~415) 루코야노프는 재무대신, 육군대신, 외무대신을 '삼두정치'(триумвирата) 세력으로 규정했다(И. Ф. Лукоянов. Не оставь от держав: Россия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конце 19 - начале 20 вв. Нестро-История, 2008, С.542). 베조브라조프 관련 국내 연구 성과로는 조호연, "러일전쟁의 원인과 베조브라조프 일파", 『인문논총』 44집, 2017; 장은주, "동북아철도와 러일관계 1891-1904. 일본의 종단철도 계획에 미친 베조브라조프의 영향력", 『역사와 담론』 제30집, 2001 등이 있다.

- 5) 베조브라조프, 아바자 등을 황실세력으로, 재무대신 비테, 외무대신 람즈도르프, 육군대신 쿠로파트킨 등을 관료세력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극동특별위원회 사무국장 아버지는 러시아의 극동정책을 둘러싸고 '비관영인사들'과 '주무부처들'이 대립했다고 기록했다. 첫째 '비관영 인사들'(Вневедом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은 '정부외공공기관(政府外公共機關)', '정부외의 활동가'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아버지는 "비관영 인사 중 국무고문 베조브라조프와 해군소장 아버지는 극동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고 기록했다(A. М. Абаза. Русские предприятия в Корее, в связи с нашей политико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898-1904. СПб, 1905. СС.164-165; ГАРФ, Ф.543.Оп.1.Д.185.ЛЛ.1~107об). 둘째 '주무부처'(Ведомственный)라고 단독으로 표기할 경우는 대체로 외무부를 의미했다. 그런데 '우리 주무 부처들'(Наши ведомства)이라고 하는 경우는 외무부, 재무부, 군부를 의미했다. 아버지는 "대립이 육군대신을 대표로 하는 주무 부처들의 견해와 국무고문 베조브라조프를 대표로 하는 비관영 인사들의 견해"였으며 "(그 대립은) 재무대신, 외무대신, 육군대신의 권력에 밀착된 주무 부처의 승리로 종결되었다."고 기록했다(A. М. Абаза. Русские предприятия в Корее, в связи с нашей политико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898-1904. СПб, 1905. СС.139~140, 205~210; ГАРФ, Ф.543.Оп.1.Д.185.ЛЛ.1~107об.).

극동정책 결정을 둘러싸고 실제 대립했다.⁶⁾

이 논문은 국립역사문서보관소(ГАРФ)의 궁내부문서군 중 베조브라조프가 직접 작성한 극동총독부, 극동특별위원회, 러일협상, 러일동맹 관련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의 극동정책 구상과 변화를 추적하려고 한다. 기존 연구는 베조브라조프를 부분적으로 언급했지만 그의 전체적인 극동정책 구상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또한 베조브라조프가 영국의 외교정책에 대응하여 러일동맹을 구상한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베조브라조프가 전제정치와 총독정치의 전체적인 구상 하에 극동총독부를 설립하고 강화하려는 사실에 주목하지 못했다.

동시에 기존연구는 황실세력이었던 베조브라조프 세력을 중심으로 압록강삼림회사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러일전쟁 직전 1904년 전후 베조브라조프의 극동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추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조브라조프의 극동정책 구상에 관한 총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1904년 전후 베조브라조프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그의 극동정책과 한국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러일전쟁의 원인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베조브라조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러일협상의 실패 원인을 파악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논문은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1903년 베조브라조프의 중앙권력 장악 과정 및 극동정책의 주도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필자는 베조브라조프가 러일전쟁에 미친 영향을 통하여 한층 더 깊게 전쟁의 원인을 추적할 것이다.

6) 김영수, “러일전쟁 전야 제정러시아의 극동정책”, 『사림』 22, 2004, 29~38쪽.

2. 극동총독부 설치 이전 베조브라조프의 극동정책과 압록강삼림회사

베조브라조프는 근위기병대에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압록강삼림회사의 주주를 구성하여 주변 세력의 이익을 옹호했다. 그는 니콜라이 2세와 대공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의 후원으로 만주에 파견되었고 ‘압록강삼림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했다. 그는 귀족과 군부 등의 인물을 중심으로 황실세력을 조직했고, 러시아의 극동정책에 개입하면서 ‘압록강삼림회사’와 ‘극동특별위원회’에 그 세력들을 참여시키고자 노력했다.

베조브라조프는 ‘압록강삼림회사’를 비롯한 러시아의 극동정책 구상을 완성하면서 그 실행에 돌입했다. 니콜라이 2세의 명령에 따라 1902년 12월과 190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여순을 비롯한 극동지역에 파견된 것이 그것이었다.⁷⁾ 니콜라이 2세는 여순 점령 및 남만주철도의 부설과 더불어 압록강 유역에서 방어막 구축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일본도 압록강 유역을 차지하고자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황제는 극동지역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권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베조브라조프를 현지에 파견했다. 1903년 3월 13일 해군소장 아바자는 특별협의회 개최 이전에 ‘압록강삼림채별권’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만주

7) 베조브라조프는 이미 1898년 2월 압록강삼림회사에 대한 구상을 기획했다. 그는 동아시아회사가 한국의 도시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교통망의 건설, 지리적 조사, 항만과 창고의 건설 등을 주장했다(和田春樹, 『日露戰爭：起源と開戦』, 上, 岩波書店, 2010, pp.448-453).

출장 중 작성한 베조브라조프의 전보에 기초한 것이었다.⁸⁾ 1903년 3월 21일 니콜라이 2세는 이 보고서를 점검하는 회의를 조만간 개최할 것인데 ‘재무대신과 육군대신도 동일한 보고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의 상단 여백에 적었다.

베조브라조프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러시아의 상업적 이권이 있어야 일본의 독점적 활동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898년 1월 러시아군사교관단, 탁지부고문, 한러은행 등의 한국 철수 조치가 한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현저히 약화시켰고, 한국에서 독점적 활동의 기회를 일본에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베조브라조프는 러시아가 한국에서 상업적 이해관계를 만들고 민간 부분의 보호를 위해 한국에 개입할 권리를 얻어서 일본의 영향력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미 니콜라이 2세가 그러한 상업적 이해관계를 만들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의 상인 브리네르(Ю. И. Бринер)로부터 한국 북부의 압록강과 두만강 삼림채벌권 매입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압록강삼림채벌권’을 통해서 도로 부설권, 삼림 수비대 유지권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완전한 권리를 소유했다. 압록강삼림회사는 어떠한 의무사항도 러시아가 부담하지 않으면서 거대한 상업적 이해관계를 수호한다는 빌미로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한국과 일본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니콜라이 2세는 압록강 유역의 방어막 형성이 만주에서 러시

8) 베조브라조프는 1903년 3월 3일 압록강삼림회사의 군사적 목적을 황제에게 설명하는 전보를 보냈다(和田春樹, 『日露戰爭：起源と開戦』, 下, 岩波書店, 2010, pp.724-725). “해군소장 아버지는 베조브라조프의 전보에 따라 황제에게 1903년 3월 13일 보고서를 썼다.” 베조브라조프의 만주 출장 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1902년 11월 극동 출장의 명령을 받고 12월 초 극동 출발, 1902년 12월 30일 여순에 도착했다. 1903년 3월 19일 여순을 출발했고, 1903년 4월 7일이 지나 빼찌르부르크에 도착했다(Русские предприятия в Корее, в связи с нашей политико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898-1904. СС.91-105 : ГАРФ. Ф.543. Оп.1. Д.185, ЛЛ.1-107 о б.).

아군대 철수 이후 일본과의 충돌을 예방하고, 일본인과 중국인이 연합한 남만주철도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황제는 만주와 한국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회사의 설립을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1) 외무부는 북경에서 만주의 이권을 조속히 확보하며 서울에서 고종이 약속한 광산 이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긴즈부르크 남작을 지원한다. 2) 재무부는 이 회사의 규약을 작성하며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3) 육군부는 만주와 한국에서 러시아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이 회사가 충분히 자리를 잡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다. 4) 현재 정부 부처의 혼선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극동에서 국가 기관의 모든 기능을 통일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등의 조치를 심의하도록 특별협의회에 명령했다.

한편 1903년 5월 23일 베조브라조프는 극동지역 재정 문제에 관한 재무대신 비테와의 협의 내용을 니콜라이 2세에게 보고했다. 베조브라조프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 재무대신 비테를 면담했는데, 그 핵심 내용은 극동지역 국경수비의 강화에 따른 재정 지원 문제였다. 베조브라조프가 비테에게 극동지역 군대 증강의 필요성을 설명하자 비테는 새롭게 추가된 군비 자금을 5년 기간 동안 2억 1천 루블의 한도로 제시했다.⁹⁾

동시에 1903년 5월 23일 베조브라조프는 육군참모본부의 극동지역 군사강화 방안을 니콜라이 2세에게 보고하면서 러시아가 북쪽 지역에 러시아 병력을 집중하면 일본과의 충돌을 늦출 수

9) ГАРФ. Ф.543.Оп.1.Д.183,ЛЛ.5-6о б. 협의가 끝난 뒤 베조브라조프는 비테를 만나 이야기한 결과를 황제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 그리고 아바자와 함께 두 차례 황제를 만나 서부 국경의 나레프강 철도선 계획을 중단하고, 그 예산 가운데 2,200만 루블을 극동으로 돌려 달라고 황제에게 제안했다(和田春樹 저, 이웅현 역, 『러일전쟁 : 기원과 개전』, 한길사, 2019, 772쪽). 나레프강은 폴란드의 북동부와 벨로루시 서쪽을 흐르는 강으로, 비슬라강의 오른쪽 지류이고 벨라루시 베레지나강의 왼쪽 지류이다.

는 있지만 대신 일본이 4개월 동안 철도를 파괴하며 남쪽 지역을 자유롭게 지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러시아군대가 남쪽 지역에 30만 명이 있어야 일본군대를 저지할 수 있으며, 만주 지역 중 혼춘(琿春) 등의 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최우선적으로 군사적 핵심 지점에 대한 군사시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⁰⁾

1903년 6월 1일 베조브라조프는 만주로 출발하는 자아무르 관구 국경수비대 총사령관 중장 치차고프(Н. М. Чичагов, 1852-1910)를 만났고, 그의 서신을 황제에게 직접 상주했다. 그러면서 재무대신 등과의 협의 때문에 극동 출발을 6월 3일로 연기했다고 말했다.¹¹⁾

그렇다면 베조브라조프는 여순까지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출장을 갔을까? 당시 흑해-인도양을 거치는 배편은 있었지만 최소 1달 이상이 걸렸다. 당시 동청철도(КВЖД)는 1897년 공사에 착수했고, 1901년 7월에 임시 운행을 시작했다. 여순까지 연결되는 남만주철도는 1903년 6월 완성되었다. 1903년 러시아신문의 광고에 따르면 당시 급행열차는 모스크바-하얼빈-여순까지 13일 4시간, 일반열차는 16일 14시간이 소요되었다.¹²⁾

1903년 6월 11일 베조브라조프는 시베리아횡단열차를 타고 출장 가던 중에 아바자로부터 니콜라이 2세의 의사가 담긴 전보를 받았다. 전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황제는 최종적으로 북쪽

10) ГАРФ. Ф.543.Оп.1.Д.183,ЛЛ.7-8 о б.

11) ГАРФ. Ф.543.Оп.1.Д.183,ЛЛ.13-14 о б.

12) https://ru.wikipedia.org/wiki/Китайско-Восточная_железная_дорога. 1903년 6월 3일 아바자는 극동으로 출발하는 베조브라조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베조브라조프는 멋진 특별열차로 출발했다. 완전히 황족 열차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이 열차의 출발은 러시아의 동방에 대한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에도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다.”(和田春樹 저, 이웅현 역, 『러일전쟁 : 기원과 개전』, 한길사, 2019, 773쪽).

으로 두만강의 러시아 이권지역 경계까지, 서쪽으로 압록강의 러시아 이권지역 경계까지 일본에 허락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제는 조선 북부지역까지 일본에 양보함으로써 러시아가 일본과의 충돌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¹³⁾

여순회의 직전인 1903년 6월 15일 베조브라조프는 비테가 극동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서인 재무부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테는 극동에서 재무부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순의 경제협의회를 강화하려고 했고, 만주철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무르 기선회사의 활동을 방해했다. 베조브라조프는 재무부의 부서 이기주의를 견제하기 위하여 자신을 극동 업무의 국무고문(Статс-секретарь)에 임명시켜 줄 것을 니콜라이 2세에게 요청했다.¹⁴⁾

1903년 6월 23일 5차 여순회의에서 베조브라조프는 남만주뿐만 아니라 압록강 이권의 중요성도 강력히 주장했다.¹⁵⁾ 7월 14일 뻬제르부르크로 돌아온 베조브라조프는 일주일 뒤인 7월 21일 한국에서 일본의 영향력에 관한 대응 방안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일본은 러시아가 파악한 한국에서의 위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숫자, 한국에 진출한 다양한 일본기업, 한국에 관한 일본 여론의 일치, 한국에 대한 열강의 현저한 양보, 일본의 강력한 군사적 방안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대략 3만 명 정도였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인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하류층이었

13) 와다 하루키에 따르면 이러한 결정은 러시아가 두만강과 압록강의 방벽까지 일본이 영유하도록 인정했다는 점이다(和田春樹 저, 이웅현 역, 『러일전쟁 : 기원과 개전』, 한길사, 2019. 789-801쪽).

14) ГАРФ. Ф.543.Оп.1.Д.183,ЛЛ.21-22 о 6.

15) ГАРФ. Ф.568.Оп.1.Д.136.ЛЛ.78-80.

다. 만약 한국 거주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보이는 항시적인 경멸과 인습적인 가혹함을 지속한다면 한국인은 자신들의 박해자에 맞서 봉기를 일으킬 것이다. 베조브라조프는 일본인이 처음부터 한국을 혼란에 빠뜨려서 백성의 봉기를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한국인을 죽인 다음 일본인을 이주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판단했다.

둘째, 일본 민영기업은 일본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상당수 진출했다. 일본정부는 일본 민영기업을 위해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 외국인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존재했다. 일본 민영기업은 한국에서 위조 화폐의 판매, 위조 화폐를 이용한 한국 상품 구매, 한국정부에 중개 서비스를 통한 상품 강매, 토지 매입과 이권 획득 등의 활동을 했다. 일본은 한국에서 위조 화폐 발행과 그 화폐를 무역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다.

셋째, 일본은 군사적으로 한국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맞서는 전략적 근거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일본은 한국 점령 뿐만 아니라 만주에서 러시아를 축출하고 '황인종'의 수장이 되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 일본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포함한 한국 북부지역을 점령한다면 군사적으로 강력해질 것이다. 일본이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을 방어막으로 진지를 구축한다면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침략을 손쉽게 감행할 것이다. 반대로 러시아가 압록강과 두만강 방어막을 점령한다면 러시아는 매우 유리한 상황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북부지역을 지형적 조건에 따라 자연 방어로 활용한 적이 있었다. 베조브라조프는 일본도 군사적으로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넷째, 일본은 다른 열강들의 양보로 한국에서 영향력을 현저

하게 증가시켰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국 북부 지역에서 다른 열강의 민간 기업을 공동으로 유치하여 일본의 강요에 맞서야 한다. 현재 한국은 자신의 모든 광물 자원을 담보로 차관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베조브라조프는 러시아가 미국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한국 북부의 광물 자원을 담보로 차관계약을 실행하는 것이었다. 그는 보각 장군의 주선으로 미국인 헌트(Hunt)가 한국과의 차관계약을 실행하도록 제안했다.¹⁶⁾

1903년 7월 23일 베조브라조프는 영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면서 러독동맹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영국의 최대 경쟁자는 독일이었다. 영국은 19세기 먼저 전 세계의 무역 특권을 독점하면서 부를 축적했고, 독일이 그 다음으로 식민지정책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영국은 육군과 해군을 보유하면서 해상을 재패했지만 독일은 해상과 육지에 충분한 군비를 지출할 여력이 부족했다. 유럽 열강은 현재 육군의 군비를 축소하고 해군을 증강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만약 러시아와 독일이 러독동맹을 통해서 두 나라 국경에 배치된 양국 육군의 축소에 동의한다면 러시아는 육군을 유럽에서 극동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군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베조브라조프에 의하면 러독동맹에 따른 러시아의 이익은 첫째, 새로운 자금 없이 극동지역에 군대를 강화할 수 있고, 둘째, 이를 바탕으로 극동에서 경제적 이익을 더 많이 보장할 수 있으며, 셋째, 러독동맹에 근거하여 일본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독일의 이익은 첫째, 유럽지역의 정치적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둘째, 해군의 강화를 통해서 무역상선을 보호하고 식민지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16) ГАРФ. Ф.543.Оп.1.Д.183,ЛЛ.85-88 о б.

있으며, 셋째, 육군의 군비를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러시아와 독일은 현실적 이익을 보장하는 ‘러독동맹’이라는 정책적 연합이 가능했다. 다만 이 협상은 영국의 이해를 침해하므로 완전히 비밀스럽게 진행되어야 했다.¹⁷⁾

러독동맹을 추진하는 동시에 1903년 7월 25일 베조브라조프는 영국의 극동정책을 분석하면서 러일협상의 문제점에 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영국은 극동지역에서 러일의 대립을 외교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일본과 러시아의 모든 협상을 방해하고자 했고, 영일동맹을 근거로 러일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모든 외교정책에 개입했다. 이에 베조브라조프는 당면한 러일협상의 대응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러시아는 태평양 연안에서 정치와 군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러시아는 영국을 제외한 다른 열강이 일본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영국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단독으로 일본을 지원하지 못할 것이다. 셋째, 이 모든 조치들이 성공하면 일본은 영국의 교묘한 정책으로 ‘러일대립’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러일 화해’로 외교정책을 바꿀 것이다.¹⁸⁾

베조브라조프는 영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면서 러시아의 외교정책 방안을 고민했다. 그는 영국이 러일의 대립을 기본적인 외교방침으로 설정한 이상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영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면서 러독동맹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가 태평양 연안에서 정치와 군사를 강화하면서 미국자본가와 공동으로 한국의 북부지역 광물 자원

17) ГАРФ. Ф.543.Оп.1.Д.183,лл.81-82 о б.

18) ГАРФ. Ф.543.Оп.1.Д.183,л.89; Документы касающиеся переговоров с Японией в 1903-1904 годах и хранящиеся в канцелярии Особого Комите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Пб. 1905. С.16. 이 문서는 베조브라조프의 1903년 7월 28일 상주 보고서가 아니라 7월 25일 문서이다.

을 담보로 한국에 차관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압록강삼림회사가 한국 북부와 만주, 압록강과 두만강의 영역을 관리하는 동시에 한국에서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방벽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3. 러일전쟁 직전 베조브라조프의 러일협상 개입과 러일동맹 구상

1903년 7월 28일 베조브라조프가 극동총독부와 극동특별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니콜라이 2세는 7월 30일 극동총독부 설치를 지시했다. 베조브라조프는 중앙의 황제 전제정치와 변경의 총독체제를 구상했다. 그는 황제 중심의 전제정치(專制政治, autocracy)가 러시아에 가장 적합한 정치체제라고 생각했다. 또한 총독이 러시아의 변경지역에서 ‘배타적 전권’을 부여받고 활동했을 때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판단했다.¹⁹⁾

베조브라조프는 변경지역에서 나타나는 관료주의의 문제점과 극동지역의 특수성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으로서의 극동총독부 설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정부 부처들의 지시는 중앙과 변경의 거리 때문에 행정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19) 베조브라조프는 과거 총독이 러시아의 변경 역사에서 많은 어려움을 해결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총독체제는 국정 현안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해결할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둘째, 총독체제의 국정 운영은 관행을 가장 적게 변화시켰으며 현행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았다. 셋째, 총독체제는 황제의 개인적인 신뢰와 직접적인 업무지휘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과 조정과 중단이 가능했다. 넷째, 총독체제는 관료적인 방법이 아니라 단일권력을 직접 실행하는 방식이므로 중앙과 변방이 최대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Г А Р Ф. Ф.543.О п.1. Д.183, ЛЛ.83-84 о б.).

떨어뜨리고 권력의 분산을 유발했다. 둘째,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국가체제의 확립과 주도권 획득의 투쟁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극동총독은 적극적인 업무를 실행하기 위한 단일 책임자로서 러시아의 군사력과 정치력을 강력히 수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러시아는 황인종도, 유럽 열강도 제압하기 어렵다. 셋째, 과거 러시아 변경은 대체로 중앙정부에서 제공한 비용으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극동은 경제적 과제가 분명하게 설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극동지역에 개인기업의 영역을 개척하기 위하여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러시아는 극동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극동총독부의 주도하에 개별적인 협의회를 운영해야 한다.²⁰⁾

베조브라조프는 극동총독부 설치 명령과 동시에 외교정책을 넘어서서 군부정책에 관한 구상도 작성했다. 1903년 7월 30일 그는 육군대신 쿠로파트킨의 보고서에 대한 비판을 니콜라이 2세에게 제기했다. 베조브라조프는 쿠로파트킨이 황제의 판단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쿠로파트킨의 군부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쿠로파트킨이 7월 24일 보고서에서 부정확한 사실을 끊임없이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²¹⁾

20) ГАРФ.Ф.543.Оп.1.Л.183,ЛЛ.83-84о6. 베조브라조프는 8월 12일 쿠로파트킨의 8월 6일자 상주에 대해서 반론을 제출했다. 베조브라조프는 쿠로파트킨이 남만주 전체를 포기하고 북부의 삼림 지역에 진지를 구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전쟁에 이르게 되면 러시아는 사실상 이러한 진지에서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조브라조프는 태평양 함대가 여순과 블라디보스토크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 해군에게서 제해권을 빼앗을 수 없다. 따라서 일본 해군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버릴 것이라고 했다. 베조브라조프는 러시아군이 일본군보다 열세에 있어서 근본적인 증강이 필요하며, 그렇게 해야만 개전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판단은 베조브라조프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보각의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을 것이다(和田春樹 저, 이웅현 역, 『러일전쟁 : 기원과 개전』, 한길사, 2019. 834-837쪽).

21) 비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러시아군부의 1901년 대일전쟁계획은 프리아무르와 여순항에 초소 두 곳 등을 설치하는 허술한 계획이었다. 그나마 최근 여순

극동총독부 설치 명령 직후인 1903년 8월 1일 비테, 쿠로파트킨, 람즈도르프가 참석한 내각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것은 내각과의 협의 없이 극동총독부 설치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비테를 포함한 관료들의 반발이었다.²²⁾ 그러자 다음 날 베조브라조프는 8월 1일 내각협의회 관련 보고서를 황제에게 제출했다. 이날 베조브라조프는 보각 소장이 극동총독 알렉세예프에게 보낸 답변 전문도 니콜라이 2세에게 함께 제출했다. 베조브라조프는 8월 1일 람즈도르프 자택에서 진행된 각료협의회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에 재무대신 비테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비테가 베조브라조프에게 쿠로파트킨이 각료협의회에서 니콜라이 2세의 명령에 따라 철도 노선을 따라 부대가 배치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하자 베조브라조프는 이 계획이 동

향은 기병대와 포병이 포함된 제1전투여단이 보강되었다. 육군대신 쿠로파트킨은 그동안 극동을 고립무원의 상태로 두었기 때문에 논쟁에 참여시킬 필요가 없었다. 둘째, 쿠로파트킨은 러시아군대가 '방어형태의 군사행동'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이것은 일본이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다. 셋째, 러시아는 압록강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전략적 의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이 압록강을 점령하면 러시아는 만주에서 곤란한 상황에 놓일 뿐만 아니라 일본은 입지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두만강과 압록강 방어를 위한 수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베조브라조프는 압록강삼림회사를 위해서 카자크 기병부대 대신 봉황성(鳳凰城)의 600명으로 구성된 사냥꾼을 극동총독 알렉세예프에게 요청했다. 알렉세예프는 150명의 사냥꾼을 압록강으로 보낸 결과 일본인의 선동 활동을 저지했다. 베조브라조프는 쿠로파트킨이 북만주에 러시아군대를 집중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런 방안이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고 비판했다(Г А Р Ф. Ф.543.О п.1.П.183, П П.27-28 о б.).

- 22) 비테, 쿠로파트킨, 람즈도르프가 참석한 1903년 8월 14일 내각협의회는 이날 재무부, 군부, 외무부의 최종적인 의견을 다음과 결정하였다. 1) 러시아가 만주지역 일부 또는 전체를 러시아영토로 합병하는 것을 반대한다. 2) 러시아군대 철수를 약속했던 러청협약(1902.4.8)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여순회의에서 기초된 대청요구안을 청국이 받아들이면 러시아는 러청협약을 이행한다. 3) 압록강삼림회사의 정치적인 활동은 중지되어야 하며 상업적인 회사로 변화해야 한다. 즉 압록강삼림회사는 '러시아상업회사'로 합병되어야 한다.(Г А Р Ф. Ф.568.О п.1.П.136, П П.112-115, 122-123 о б.; 김영수, "러일전쟁 전야 제정 러시아의 극동정책", 『사림』 22, 2006, 17-18쪽).

청철도 주변의 토지수용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고, 청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베조브라조프는 재무대신 비테를 ‘생명이 아주 짧은 정치가’라고 폄하했지만 극동지역 군대의 편제와 강화를 위해서는 비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니콜라이 2세에게 제안했다.²³⁾

베조브라조프는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Оккупации Маньчжурии)하고 한국을 보호령(Протекторат над Кореей)’으로 만드는 장기적인 계획을 지지했다. 우선 그는 러시아가 관동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베조브라조프는 러시아가 극동에서 군사력을 정비한 다음 외국인이 참여하는 러시아의 개별기업이 군사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모든 국영 기업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교섭을 재무대신과 재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²⁴⁾

베조브라조프가 극동총독부에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경제 영역이었다. 먼저 그는 극동총독부 산하 러청은행과 동청철도가 극동지역의 경제활동을 수행할 기구라고 판단하고, 두 기구를 청국의 노동력과 외국의 자본을 끌어와서 러시아의 이익을 위한 기구로 만들 구상을 했다. 러청은행과 동청철도가 그 지역의 모든 대기업들 및 이권 획득의 독점권을 통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통자본 형성 및 투자 비용을 회수한다면 지분과 주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지출 없이 국유자본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조브라조프는 극동총독 직속 군사분야 전권위원(Генеральный военный комиссар), 상공업·재정분야 전권위원(Главный уполномоченный по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ым и финансовым делам) 등의 신설을 구상하고, 극동총독부에 대

23) ГАРФ, Ф.543.Оп.1.Д.183,ЛЛ.29-30 о б.

24) ГАРФ, Ф.543.Оп.1.Д.183,ЛЛ.31-32 о б.

한 법령이 확정된 다음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하려고 했다.

다음으로 그는 경제부문에 이사회와 기업인을 포함시켰다. 행정부문에 극동총독을 중심으로 외교와 법률 관청, 육군과 해군 참모본부 등을 편제하고, 경제부문의 특별기구로 러칭은행부, 동청철도부, 해상무역부, 한러은행 등을 편제시켰다. 극동총독부의 주요 인물은 극동총독 직속 상공업·재정 분야 전권위원, 군사 분야 전권위원, 자바이칼주 사령관, 아무르주 사령관, 프리아무르주 사령관, 관동주 사령관, 만주 전권위원 등으로 구성되었다.²⁵⁾ 그는 1898년 폐쇄된 한러은행을 극동총독부 행정 영역에 다시 포함시킬 만큼 경제적으로도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1903년 8월 14일 베조브라조프는 극동총독부의 세부적인 규정안 작성을 위해 해군소장 아바자, 육군소장 보각과 함께 논의했고, 작성된 규정안을 보각을 통해서 알렉세예프 해군제독에게 보낼 계획이라고 니콜라이 2세에게 보고했다. 그는 극동총독부 규정안 작성 이외에 극동특별위원회 설치(1903년 9월 30일) 관련 규정과 인사 문제에도 관여했다. 그는 극동총독부와 극동특별위원회의 긴밀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개입했다. 1903년 9월 27일 베조브라조프는 극동특별위원회 규정에 대한 감수를 완료하여 내무대신 플레베(В. К. Плеве)를 통해 니콜라이 2세에게 상주했다.²⁶⁾

그런데 이날 베조브라조프는 극동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육군소장 보각을 추천했다. ‘보각이 극동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졌

25) ГАРФ. Ф.543.Оп.1.Д.183,ЛЛ.90-93 о б. 한편 베조브라조프에 따르면 주청 러시아공사 레사르(Лессар)는 자기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무원칙적인 사람이었다. 레사르는 신노선(Новое направление)을 믿지 않는다고 플란손과 긴즈부르크에게 솔직히 말했다.”(ГАРФ. Ф.543.Оп.1.Д.183,ЛЛ.31-32 о б.).

26) ГАРФ. Ф.543.Оп.1.Д.183,ЛЛ.33-34 о б.; 이항준, “러일전쟁 전후 극동총독부와 극동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해체”, 『사림』 82, 2022. 390-393쪽.

으며 현재 업무에 매우 유용한 사람이다'라며 그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그는 보각과 알렉세예프의 관계가 유지되어 극동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베조브라조프는 극동총독 알렉세예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중앙정부의 배려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각은 극동특별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지 못했다.²⁷⁾

니콜라이 2세는 1903년 8월 러일협상 당시 답변서 초안을 베조브라조프에게 작성시킬 정도로 그의 극동정책 방향을 수용했다. 베조브라조프가 기초하고 니콜라이 2세가 보강, 승인한 그 초안의 핵심은 러시아 극동정책의 방향이 만주와 한국 문제를 연결시켰다는 점이었다.

1903년 8월 14일 일본의 러일협상 1차 협상안(7월 30일)에 대한 니콜라이 2세의 답변안 작성 지시에 따라 베조브라조프가 8월 16일 러시아의 1차 협상안 초안을 작성했는데, 니콜라이 2세는 그의 초안을 승인하면서 만주에서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규정할 때 '유사한(аналогичный)'이란 단어를 삽입하도록 지시했다.²⁸⁾

일본의 1차 협상안(7월 30일)과 베조브라조프의 1차 협상안 초안(8월 16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 ГАРФ. Ф.543. Оп.1. Д.183, ЛЛ.50-51 о б.

28) “Если же ниже переговоры до некоторой степени разбираются, то только потому, что 14-го августа 1903 года Государь Император изволил поручить статс-секретарю Безобразову составить проект нашего ответа на японские предложения от 30 июля.”(Русские предприятия в Корее, в связи с нашей политико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898-1904. С.179 ; ГАРФ. Ф.543. Оп.1. Д.185. ЛЛ.1-107 о б. 아바자에 따르면 러시아 황제의 '유사한'이란 설정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러시아의 시야를 넓혀주었다(Абазова А. М. Русские предприятия в Корее, в связи с нашей политико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898-1904. СПб. 1905. СС.192-194; ГАРФ. Ф.543. Оп.1. Д.185. ЛЛ.1-107 о б.).

〈표1〉 일본의 1차 협상안과 러시아의 1차 협상안 초안

일본의 1차 협상안(7월 30일)	러시아의 1차 협상안 초안 (8월 16일 베조브라조프 작성)
1. 일본과 러시아는 청국과 한국의 독립을 존중하고 이 지역의 상공업에서 모든 민족의 평등권 원칙을 지지한다.	1. 러시아와 일본은 청국과 한국의 독립 및 영토 불가침을 존중한다.
2. 양국은 각각 한국에서 일본의 우세한 이익, 만주에서 러시아 철도 부설의 특별한 이익을 상호 인식하고 본 협약의 1조의 규정 하에 일본은 한국에서, 러시아는 만주에서 각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한다.	2. 양국은 일본이 한국에서, 그리고 러시아가 만주에서 지니고 있는 '유사한' 이익을 상호 인정한다. ²⁹⁾
3. 양국은 1조의 규정과 위배되지 않는 한 한국에서의 일본, 만주에서의 러시아의 상공업적 활동의 발달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상호 보증한다. 한국철도를 남만주에 연장하여 동청철도 및 산해관(山海關 Шаньхайгуань)-우장(牛莊 Нючжуанскою)선에 연결하려고 할 경우 러시아는 방해하지 않는다.	3. 양국은 1조의 규정과 위배되지 않는 한 상공업 회사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4. 양국은 2조 관련 이익 보호의 목적 또는 국체분쟁을 야기하는 폭동이나 무질서를 진압할 목적으로 일본은 한국으로, 러시아는 만주로 군대를 파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파견 병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제 필요한 인원수를 초과하지 않는다. 파견 군대는 말은 바 임무를 완수하는 즉시 철수해야 한다.	

29) “Обоюдное признание существующих аналогичных интересов Японии в Корее и России в Маньчжурии.”(Документы касающиеся переговоров с Японией в 1903-1904 годах и хранящиеся в канцелярии Особого Комитета Двального Востока. СПб. 1905. С.17).

<p>5. 러시아는 한국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불가피한 군사상의 원조를 포함한 정비된 통치(правление)를 확립하기 위한 지도에 관한 일본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다.³⁰⁾</p>	<p>5. 러시아는 한국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정비된 통치를 확립하기 위한 조언(совет)과 지도(указание)를 제공하는 일본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다.³¹⁾</p>
<p>6. 본 협정은 현재까지 한국과 관련하여 러일 사이에 체결된 모든 협정을 대체한다.</p>	<p>6. 본 협정은 이전에 일본과 러시아가 체결한 모든 협정을 대체한다.</p>

* 출처 : Русские предприятия в Корее, в связи с нашей политико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898-1904. С.179, Документы касающиеся переговоров с Японией в 1903-1904 годах и хранящиеся в канцелярии Особого Комите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Пб. 1905. СС.17-18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

아바자는 일본의 1차 협상안과 베조브라조프의 1차 협상안을 ‘러시아의 만주 점령이 일본에 위협이라면 일본의 한국 점령도 러시아에 위협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그는 러시아가 동청철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만주에서 러시아 이익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일본이 한국에서 러시아의 양보를 요구하면, 러시아도 만주에서 일본의 양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²⁾ 아바자에 따르면 니콜라이 2세의 ‘유사한’이란 단어는 한

30) “Признание со стороны России исключительного права Японии и давать указания и содействовать проведению реформ и установлению хорошего правления в Корее, включая и необходимую военную помощь.”(Документы касающиеся переговоров с Японией в 1903-1904 годах и хранящиеся в канцелярии Особого Комите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Пб. 1905. С.18).

31) “Признание со стороны России права Японии давать указания и советы к проведению реформ и установлению хорошего управления в Корее.”(Документы касающиеся переговоров с Японией в 1903-1904 годах и хранящиеся в канцелярии Особого Комите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Пб. 1905. С.18).

32) Абаза А М Русские предприятия в Корее, в связи с нашей политико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898-1904. Спб. 1905. С.С.192-194 ; ГАРФ, Ф.543, Оп.1, Д.185, ЛЛ.1-107 об.

국과 만주 문제의 연관성을 의미했다. 한국과 만주의 ‘유사한’ 이익은 극동 정세 전반의 본질과 협상에 관한 러시아의 원칙이었다. 베조브라조프는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극동에서 1898년 이후 여순을 요새로 구축하면서 러시아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했지만, 오히려 1903년 남만주에서 러시아군대를 일부 철수시켜 전쟁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베조브라조프는 1차 협상안에서 만주와 한국에 대한 러시아와 일본의 동등한 양보를 추구하려고 했다. 그러나 베조브라조프는 1차 협상안 초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러일협상안 작성에 참여하지 못했다.³³⁾

게다가 베조브라조프의 1차 협상안 초안도 일본에게 통고될 수 없었다. 아바자는 ‘러시아 황제가 지시한 원칙적 설정과는 반대로 (러일협상이) 외무부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더구나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과 만주 문제를 연관시키는 대신 ‘분리시켜’ 러일협상을 진행했다. 원칙상 극동총독부가 러일협상안을 기초하면 외무부는 니콜라이 2세에게 이 안을 전달하는 보고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외무대신 람즈도르프가 협상안에 적극 개입하면서 러일협상을 주도했기 때문이었다.³⁴⁾

러일협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게 된 베조브라조프는 극동특별위원회 조직 구성과 극동지역 경제 계획에 집중했다. 그

33) 아바자는 베조브라조프가 1차 협상안 초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러일협상안의 작성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기록했다(Абаза А М Русские предприятия в Корее, в связи с нашей политико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898-1904. Сп б. 1905. СС.210-213; ГАРФ. Ф.543. Оп.1. Д.185. ЛЛ.1-107 о б.).

34) 1903년 9월 15일 러시아가 일본에서 통고할 1차 협상안을 완성했는데 작성자는 극동총독 알렉세예프와 주일 러시아공사 로젠이었다. 와다에 따르면 로젠은 알렉세예프의 초안을 그대로 수용했고, 다만 7항을 “일본이 만주와 그 연안이 이해권 밖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을 제안하여 포함시켰다(和田春樹, 『日露戰爭：起源と開戦』, 下, 岩波書店, 2010, p.877).

는 극동총독 소속으로 군사분야 전권위원, 상업분야 전권위원, 만주지역 전권위원 등의 도입을 주장했는데, 특히 만주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만주지역 거주민의 통제를 위한 완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열강 개입의 빌미를 차단하기 위하여 만주지역 전권위원(Генеральный комиссар в Маньчжурии)의 신설과 임명을 황제에게 제안했다. 만주지역 전권위원은 극동총독 소속이지만 만주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통제를 실행하고, 만주 관련 정치, 군사, 상업 업무를 모두 총괄하는 직책이었다.³⁵⁾

동시에 베조브라조프는 1903년 9월 24일 ‘만주지역 전권위원의 훈령안’³⁶⁾을 첫 번째 부속문서로, ‘만주지역 전권위원의 정원

35) 베조브라조프는 만주지역 전권위원 구성안을 다음과 같이 매우 세부적으로 작성했다. 만주지역 전권위원은 봉천(묵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보좌관을 두고 행정실을 관리한다. 행정실은 총무국, 법무국, 군사국 등 총 3국(局)으로 구성된다. 전권위원은 기록과 구술 통역관 각각 2명씩 필요하다. 통역관은 성공을 촉진시키도록 대우를 높여 주기 위하여 2,800루블의 급여와 제7계급의 직책을 부여하며 고급 인력이 채용된다. 만주지역 전권위원은 흑룡강성·봉천성(묵덴)·길림성 위원(Комиссар) 등을 소속시킨다. 위원들은 총무국과 법무국으로 구성된 행정실을 관리하고 보좌관과 통역관을 둔다. 묵덴성은 연간 1천 루블, 길림성은 연간 4백 루블, 흑룡강성은 1백 5십만 루블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 연간 총 1천 5백 5십만 루블의 비용이 필요하다. 흑룡강성 위원은 2명의 보좌관을 지휘하며 치치하얼, 하얼빈 등을 관할한다. 길림성 위원은 5명의 보좌관을 지휘하며 송화강, 영고탑, 장춘 등을 관할한다. 봉천성 위원은 7명의 보좌관을 지휘하며 몽골과 연결되는 신민진(新民鎮), 남만주의 정치 중심지 금주부(金州府), 한국의 접경과 연결되는 봉황성과 통화선(通化線) 등을 관할한다. 위원 소속의 총 16명의 보좌관이 필요하다. 보좌관도 통역과 비서가 필요하다. 그 대신 현재 운영되는 아무르와 프리아무르 국경위원 제도는 폐지된다(Г А Р Ф. Ф.543.О п.1.Д.183,ЛЛ.35-49 о б.).

36) 극동총독은 만주지역 전권위원을 선출하여 휘하에 두고, 만주지역 전권위원은 특별 적용된 정원 규정에 따라 조직된 행정실을 관리한다. 만주지역 전권위원은 만주에 있는 러시아의 행정관리와 경비대를 지휘하고, 만주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이권의 확대, 재관의 감독 등을 수행한다. 또한 만주지역 전권위원은 만주지역의 모든 기관과 관리에 대해 총독의 권리를 대행하고 군단사령관의 권리를 행사한다. 그리고 만주지역 전권위원에게는 주청 러시아공사의 권리가, 위원과 보좌관에게는 영사의 권리가 부여된다(Г А Р Ф. Ф.543.О п.1.Д.183,ЛЛ.35-49 о б.).

규정안³⁷⁾을 두 번째 부속문서로 작성하여 니콜라이 2세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베조브라조프가 제안한 만주지역 전권위원 제도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러일협상이 지체되면서 전운이 감돌던 1903년 12월 28일 베조브라조프는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이해관계, 영국과 미국의 이해관계 등 러시아의 외교정책 전반에 관하여 니콜라이 2세에게 보고했다. 우선 베조브라조프는 일본이 러일전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일본의 군사 행동이 매우 강경하고 단호하지만, 영일동맹으로 영국이 극동정책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외교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고 인식했다.

베조브라조프는 먼저 만주와 한국에서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러시아는 태평양에서 러시아 영토와의 연락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순을 점령했다. 시베리아철도는 흑룡강을 따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부설되기 때문에 하얼빈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최단거리 노선 및 부동항 여순으로 연결되는 지선 등도 설치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여순과 요동반도를 자국의 세력권으로 편입시켰다. 러시아는 한국을 점령하면 막대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므로 일본이 한국에 발판을 구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준에서 멈춰야 한다. 따라서 러시아는 만주와 한국을 군사적으로 침략하지 않고 태평양 연안과 러시아 본토와의 연락상 안전을 보장하는 수준에 집중해야 한다. 베조브라조프는 현재 러시아가 만주와 한국에서 군사적 침략을 수행할 시기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37) 만주지역 전권위원은 육군중장 또는 육군소장도 가능하다. 그의 급료로 최소 총 1만 8천 루블을 지급한다. 동청철도는 청국 관리를 매수하는 비용으로 매년 2만 8천 루블을 지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만주지역 전권위원은 2천 8백 루블을 선물비용으로 쓸 수 있었고, 정원 규정에 따른 총 운영비용은 34만 1천 루블이었다(Г А Р Ф. Ф.543. О п.1. Д.183, лл.35-49 о б.).

둘째, 베조브라조프는 극동지역에서 일본의 이해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일본은 섬의 입지와 인구 밀도 등이 무역과 산업 발전의 도약 단계에 올라섰다. 일본의 무역과 산업의 영역은 청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연안과 태평양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만주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셋째, 베조브라조프는 동아시아에서 영국과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영국과 미국은 청국, 동남아시아, 태평양 등지에서 무역과 산업의 중심국이 되었다. 영국과 미국은 이곳에서 러시아와의 경쟁이 아닌 일본과의 경쟁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왜냐하면 일본은 그곳에서 지리적 위치, 인종·문화·언어적인 관계에서 영국과 미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국과 미국은 일본을 남부로부터 북부로 밀어내면서 일본의 산업 발전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넷째, 베조브라조프는 극동지역에서 영국과 미국의 외교적 책략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그는 영국이 고안하고 미국이 동의한 ‘일본에게 최면을 거는’ 외교적 책략을 지적했다. 일본은 자국의 무역과 산업의 진출 방향을 영국과 미국의 책략에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1) 영국은 일본과 반러동맹인 ‘영일동맹’을 체결하고서 러시아가 프랑스와 함께 일본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했다. 2) 극동지역의 영자신문들은 러시아가 만주 → 한국 → 일본 → 청국을 순서대로 점령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영자신문들은 극동지역에서 영국과 미국의 경제적 침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3) 일본의 국내 정치단체들은 러일전쟁을 유도하고 있었다. 도쿄, 서울, 북경 주재 영국과 미국 공사는 일본정부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4) 영국은 러시아

가 아주 쉽게 일본과의 전쟁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동에서 러시아에 자유로운 상황을 만들고 있었다. 런던의 신문들은 최근 일본을 열심히 지지하기 시작했다. 결국 베조브라조프는 일본 정치단체의 러일전쟁 선동의 배후가 극동주재 영국과 미국의 외교관이라고 생각했고, 영국이 기획한 극동지역 외교정책에 따라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섯째, 베조브라조프는 영국과 미국이 러시아와 일본의 쇠퇴를 목표로 러일전쟁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1) 러시아와 일본은 지속적으로 군비를 지출하여 국제 자본의 유치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2)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할지라도 재정적으로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 놓일 것이다. 일본은 러시아를 결정적으로 이길 수 없으므로 배상금 지불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과 러시아는 무력을 통한 평화가 성립될 것이며 지속적인 군비를 지출할 것이다. 3)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영국과 미국은 극동에서 정책적으로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일본은 재정적으로 파산할 것이고 산업 발전도 후퇴할 것이다. 결국 베조브라조프는 영국의 영일동맹과 미국의 일본 원조는 반 러시아적 경향을 갖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일본의 발전에 불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섯째, 베조브라조프는 극동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러일동맹’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 러시아와 일본은 충분한 육군력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국제정세를 좌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2) 러일동맹은 극동지역에서 무역을 포함한 다양한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3) 러일동맹은 자국에 손해를 주지 않으면서 열강의 이해관계와 조화될 수 있다. 4) 러일동맹으로 러시아와 일본은 극동지역에서 자국 병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 5) 러일동맹은 청국을 동맹국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

일곱째, 베조브라조프는 ‘러일동맹’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러일동맹은 극동에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방어적 병력만 창설한다. 2) 러시아는 만주를 병합하지 않으며 한국의 독립을 유지시킨다. 러시아와 일본은 열강의 한국 점령에 맞서서 ‘러일연합군대’를 결성한다. 일본은 한국의 북부나 남부에서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3) 러시아와 일본은 각각 만주와 한국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회사’를 설립한다.³⁸⁾

결국 베조브라조프는 러일협상의 마지막 순간에 ‘러일동맹’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만주를 점령하지 않고 한국의 독립을 유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것은 만주지역 점령이라는 베조브라조프의 초기 극동정책과 다른 것이었다. 그는 러시아가 만주에서, 일본이 한국에서 경제적 우위를 점유하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러시아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했다.

베조브라조프는 1903년 12월 말과 1904년 1월 초 실제 ‘러일동맹’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러 일본공사 구리노에게 ‘러시아의 만주이권 고수와 한국문제 양보’라는 자신의 구상을 전달했다. 1903년 12월 30일 주러 일본공사관 통역관 타노(田野)는 베조브라조프와 약 2시간 동안 대화했다. 이를 뒤인 1904년 1월 1일 구리노는 통역관 타노와 베조브라조프의 대화를 외무대신 고무라에게 전보로 보고했다.

베조브라조프의 비서 본랴르랴르스키는 일본에서 돌아온 뒤 구리노를 방문하여 베조브라조프와 회견할 것을 요청했다. 본랴르랴르스키에 따르면 베조브라조프는 일본에서 오해를 받아 ‘배일본당(排日本黨)’ 또는 ‘개전론(開戰論)’의 주창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당시에는 일본과 협조를 이루는 데 찬성하고 있었다. 구리

38) ГАРФ. Ф.543.Оп.1.Д.183,ЛЛ.54-61 о б.

노는 가벼운 병을 이유로 회담을 연기하면서 타노 통역관을 대신 보내 베조브라조프와 회담을 진행시켰다.

이 자리에서 베조브라조프는 처음부터 ‘일본에서 자신을 일본의 적이며, 주전론(主戰論)의 거장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리고 자신은 오히려 러·일 양국의 평화를 가장 좋은 정책으로 믿고 있으며, 동시에 영일동맹이 하나의 허망한 환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주에서 상업상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일본측 주장에는 반대했다.

베조브라조프는 한국문제에 관한 일본의 제의를 원안대로 수락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일 양국이 공고한 협력을 합의한다면 한국 현안도 완전히 일본에게 일임할 준비가 되어 있고, 러시아가 극동에서 연해 방어 이외에는 어떤 해군력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러일전쟁은 두 나라 모두에게 ‘참화(慘禍)’이며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가능하면 러일동맹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희망했다.

1904년 1월 12일 구리노는 러시아 정부의 견해를 크게 비테와 베조브라조프로 나누어 파악한 뒤 일본에 대한 베조브라조프의 견해를 외무성에 보고했는데, 그 보고는 러일동맹을 구상하고 있었던 베조브라조프의 입장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즉 ‘베조브라조프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결코 무력에 호소해서 러시아에 저항할 수는 없을 것이며 러일협상은 충분히 러시아의 희망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만주에 관한 일본의 요구를 완전히 거절하고, 한국에 관한 요구도 가능한 한 러시아에 유리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만주에 관한 강경정책으로 군부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는 ‘일본이 무력으로 맞선다면 러시아도 무력으로 무너뜨려야 한다’며 극동지역에 군함과 군대의 파견을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한편 1903년 말부터 베조브라조프는 '일본이 어찌면 전쟁을 시작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러일협상에 실패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니콜라이 2세의 신용과 총애를 잃을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그는 러일협상의 견해 차이를 해소시키는 러일 양국의 성명서 발표 방안을 모색했다. 베조브라조프는 러일협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이목을 놀라게 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이것은 베조브라조프가 니콜라이 2세의 신용과 총애를 강화하고, 기회를 보아 정권을 한 손에 장악하려는 의도였다. 베조브라조프는 '극동지역에 대규모의 러시아 군함과 군대를 파견, 유지하는 것은 러시아의 재정상 지극히 곤란한 일이다'라고 판단하여 러일 양국의 성명서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자 했다.

베조브라조프는 러일 양국의 '우정의 전신교환'을 통한 러일협상의 해결 방안을 다음과 같이 계획했다. 첫째, 일본이 양국의 전신교환에 동의한다면 베조브라조프는 '전문안(電文案)'에 대한 협의를 사전에 진행한다. 둘째, 일본이 전문안에 동의하면 그는 니콜라이 2세에게 은밀히 알현을 요청하여 '우정의 전신 교환이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납득시킨다. 셋째, 전신교환이 세상에 발표되는 날 러일협상에 관한 전권을 니콜라이 2세로부터 위임받은 후 자신의 반대파를 궁지에 빠뜨리고 알렉세예프 제독을 소환한다. 그는 러일동맹을 체결할 목적으로 러일협상에서 최대한 일본에 양보하여 협상 타결을 시도하고자 했다. 하지만 베조브라조프는 자신의 계획이 반대파에게 알려졌음을 눈치 채고, 반대파의 공격을 염려하는 동시에 아바자의 반대 권고를 받아들여 구리노에게 약속한 각서의 작성을 중단했다. 이는 베조브라조프의 각서가 반대파의 무기로 이용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구리노는 베조브라조프가 니콜라이 2세에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³⁹⁾ 그는 베조브라조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러시아의 국내동향을 탐지하려고 노력했다. 베조브라조프는 신병 치료를 위해 1월 2일부터 3주간 휴가를 받아 제네바에 갈 예정이었으나 ‘전신교환’의 대망(大望)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출발을 연기, 12일 오후에 출발하기로 결정했다.

베조브라조프는 전신교환만 성취된다면 러일협상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육군소장 보각이 전신교환 관련 일본의 동의를 전보로 보내주면 즉시 뻬제르부르크로 돌아와서 니콜라이 2세의 동의를 받을 계획이었다. 구리노는 베조브라조프가 일본과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구리노는 전신교환이 실패할 경우 베조브라조프가 다시 만주에 대한 강경정책을 견지하면서 군부세력을 선동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구리노는 베조브라조프를 ‘간교한 영웅의 성격(姦雄ノ性質)’을 지닌 인물이라고 파악하고, 처음부터 베조브라조프와의 관계를 은밀히 진행하기 위하여 그와 한 번 왕래한 이후부터는 타노 통역관을 통해서 협상을 진행시켰다.⁴⁰⁾

그 뒤 1904년 1월 17일과 18일 아바자는 베조브라조프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구리노와 비밀협상을 전개했다.⁴¹⁾ 1월 20일 아

39) 구리노에 따르면 베조브라조프는 니콜라이 2세의 시종무관(侍從武官, 국무고문)이었는데 황제의 깊은 총애를 받아 위세와 권력이 궁정(宮廷)의 안팎을 압도하고 있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録(22)』, 1904년 3월 3일, 一四. 機密本省來 (4) 機密送第14號 [露國政治家の日本態度에 관한 見解 報告書 進達 件] [別紙 機密第1號 附屬書 田野 通譯官 「베조브라조프」 와의 對談內容 電信譯文], 外務大臣 男爵 小村 壽太郎→在韓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1904년 3월 3일 외무대신 고무라(小村)는 주러 일본공사 구리노(栗野愼一郎)의 베조브라조프와 비테의 일본에 대한 견해에 관한 1904년 1월 1일자 전보를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에게 통지했다.

40) 『駐韓日本公使館記録(22)』, 1904년 3월 3일, 一四. 機密本省來 (4) 機密送第14號 [露國政治家の日本態度에 관한 見解 報告書 進達 件] [別紙 機密第1號 露國政治家ノ日本態度ニ關スル見當], 外務大臣 男爵 小村 壽太郎→在韓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41) МИД. Записка по поводу изданного Особым Комитето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борника документов по переговорам с Японией 1903~1904 гг.”, Спб. 1905. СС.10-12.

바자는 구리노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니콜라이 2세를 만났다.⁴²⁾ 그러나 베조브라조프의 러일동맹 구상과는 달리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은 결렬되었다. 일본이 러시아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기다리지 않고 러일전쟁을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1월 23일 러시아와 단교를 선언했고, 러시아는 1월 24일 이를 수신했다.

결국 구리노는 베조브라조프의 극동정책 구상을 간파하고 있었다. 베조브라조프는 기본적으로 1898년 관동에 대규모의 선두 부대를 배치하고 여순항 요새를 구축하여 관동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위상을 강화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베조브라조프는 러시아의 위상이 1903년 남만주에서 러시아군대 중 일부가 철수하면서 약화되기 시작했고, 만약 러시아가 일본과의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했다면 러시아군대가 극동지역에 충분히 주둔했을 것이므로 러일전쟁은 절대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며, 설령 전쟁이 강요되었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더 영예로운 결말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⁴³⁾

베조브라조프는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하고 한국을 보호령’으로 만드는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했다. 그러나 일본과 영국 등이 러시아를 군사적·외교적으로 압박하자 그의 극동정책을 수정했다. 그의 극동정책이 변화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조브라조프는 1903년 8월 16일 러시아의 1차 협상안 초안을 작성했고, 여기에서 만주와 한국에 대한 ‘러시아와 일본의 동등한 양보’를 추구했다. 그것은 ‘만주에서 러시아, 한국에서

42) 和田春樹 저, 이웅현 역, 『러일전쟁 : 기원과 개전』, 한길사, 2019. 1059~1060쪽. 와다는 아버자와 구리노의 비밀 회담이 도쿄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43) Абаза АМ Русские предприятия в Корее, в связи с нашей политико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898-1904. Спб. 1905. С.179-180 : ГАРФ. Ф.543.Оп.1.Д.185,ЛЛ.1-107о 6.

일본의 상호 이익의 인정,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까지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외무대신 람즈도르프와 육군대신 쿠로파트킨 등 관료세력의 반발로 러일협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게 되자 베조브라조프는 극동특별위원회 조직 구성과 극동지역 경제 계획에 집중했다.

둘째, 1903년 말 베조브라조프는 '일본이 어쩌면 전쟁을 시작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러일협상에 실패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니콜라이 2세의 신용과 충애를 잃을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러일협상이 지체되면서 전운이 감돌던 1903년 12월 28일 베조브라조프는 극동지역에서의 러시아 외교정책 전반에 관한 구상을 했다. 일본의 군사행동이 매우 강경한 상황이며 일본이 러일전쟁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국이 기획한 극동지역 외교정책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베조브라조프는 일본과 영국의 시나리오를 저지하기 위하여 극동의 평화를 위한 방안으로 '러일동맹'을 제안했다. 베조브라조프는 러일협상의 마지막 순간에 '러일동맹'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만주를 점령하지 않고 한국의 독립을 유지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의 극동정책을 변경했다. 실제 베조브라조프는 1903년 12월 말과 1904년 1월 초 '러일동맹'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노에게 '러시아의 만주이권 고수와 한국문제 양보'라는 자신의 구상을 전달했다. 그리고 러일 양국의 '우정의 전신교환'을 통한 '러일동맹'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다. 실제 1904년 1월 17일과 18일 아바자는 베조브라조프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구리노와 비밀협상을 전개했다.

다시 말하면 베조브라조프는 군사적 우위에 따른 힘의 균형을 추구했던 인물로서 '만주를 점령하고 한국을 보호령'으로 만드는 계획을 구상했지만 일본이 만주와 한국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1903년 8월 ‘만주와 한국에 대한 러시아와 일본의 동등한 양보’라는 입장으로 물러섰고, 중국에는 러일전쟁 직전인 1904년 1월 ‘러시아의 만주이권 고수와 한국문제 양보’라는 내용의 ‘러일동맹’까지 추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베조브라조프는 니콜라이 2세의 보호 아래 성장한 황실세력이었다. 니콜라이 2세는 기본적으로 만주와 한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한편으론 최대한 전쟁을 억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황제의 의사를 충실히 수행한 인물이 바로 베조브라조프였다. 그는 니콜라이 2세의 조직과 자금의 후원 아래 ‘압록강삼림회사’와 ‘극동특별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적극적인 극동정책을 펼쳤지만 러일전쟁 직전 일본의 군사행동을 막기 위하여 ‘한국양보’와 ‘러일동맹’이라는 양보안까지 제시하며 최대한 러일전쟁을 억제하려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럼에도 1903년 12월 일본 육군참모본부는 대러 군사작전계획을 완성했다. 또한 1904년 1월 외무대신 고무라는 어전회의에서 러시아가 러일협상을 지연하면 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일본 정부는 2월 4일 전쟁을 결정했다. 그것은 러일개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일본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4. 결 론

베조브라조프는 근위기병대에 근무했거나 황실 소속 기구에 관련된 인물을 중심으로 압록강삼림회사의 주주를 구성하여 황실세력의 이익을 옹호하고자 했다. 그는 니콜라이 2세의 후원을 받아 황실세력을 통해 러시아의 극동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했다. 니콜라이 2세도 전제권 강화를 위해 베조브라조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러시아의 극동정책을 황제에게 직접 제안했고, 그 승인을 받아 움직였다. 특히 1903년 8월 14일 니콜라이 2세는 7월 30일자 일본의 러일협상 제안에 대한 러시아의 답변안 작성을 베조브라조프에게 위임했다. 니콜라이 2세는 베조브라조프가 작성한 답변안을 8월 16일 승인하면서 한국에서 일본의, 만주에서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규정할 때 ‘유사한’이란 단어를 삽입하도록 명령했다. 이것은 한국과 만주문제의 연관성 및 베조브라조프와 니콜라이 2세가 직접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베조브라조프는 기본적으로 한국문제에 대해서 러시아의 상업적 이권이 있어야 일본의 독점적 활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에서 압록강삼림회사가 한국 북부와 만주, 압록강과 두만강 하구의 영역을 관리하는 동시에 한국에서 일본과 러시아 사이 방벽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베조브라조프는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하고 한국을 보호령으로 만드는 장기적인 계획을 지지했다. 하지만 그는 ‘만주 점령과 한국 보호령’이라는 자신의 기본적인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일본이 만주와 한국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1903년 8월 ‘만주와 한국에 대한 러시아와 일본의 동등한 양보’라는 입장으로 물러섰다. 그리고 러일협상의 마지막 순간에 ‘러일동맹’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만주를 점령하지 않고 한국의 독립을 유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만주 점령과 한국 보호령’이라는 베조브라조프의 극동정책 기본 방침이 변화된 것이었다.

베조브라조프가 ‘만주 점령과 한국 보호령’이라는 강경정책에서 1903년 12월 ‘러일동맹’이라는 유화정책으로 급격히 전환한

것은 한국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 그리고 러일동맹을 통해 일본의 군사행동을 막고 극동에서 영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베조브라조프는 외교협상에서 일본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하여 러일협상의 실패에 기여했다. 러시아의 황실세력과 관료세력은 내부의 갈등으로 만주지역 러시아군대의 철수를 둘러싼 혼선을 자초했는데 이 또한 일본이 러일전쟁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를 제공했다.

한편 일본은 베조브라조프의 러일협상 대응 방안의 변화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는 동시에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 외무대신 고무라는 러시아가 러일협상을 지연하면 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일본정부는 2월 4일 전쟁을 결정했다. 그것은 러일개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일본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1. 사료

ГАРФ. Ф.543. Оп.1. Д.183.

ГАРФ. Ф.543. Оп.1. Д.185.

ГАРФ. Ф.568. Оп.1. Д.136.

ГАРФ. Ф.818. Оп.1. Д.55.

『駐韓日本公使館記録(22)』, 『駐韓日本公使館記録(21)』.

Документы касающиеся переговоров с Японией в 1903–1904 годах и хранящиеся в канцелярии Особого Комите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Пб. 1905.

МИД. Записка по поводу изданного Особым Комитето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борника документов по переговорам с Японией 1903~1904 гг.”, Спб. 1905.

Абаза АМ. Русские предприятия в Корее, в связи с нашей политико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898–1904. Спб. 1905.

Толстой Л. Н. Единое на потребу.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Толстой Л. Н. Одумайтесь!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2. 저서

최덕규, 『한국과 러시아관계』, 서울: 경남대학교출판부, 2001.

최문형, 『제국주의 시대의 열강과 한국』, 서울: 민음사, 1990.

Malozemoff A. 석화정 역,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서울: 지식산업사, 2002.

Ростунов И. И. 김종현 역, 『러일전쟁사』,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4.

- Нарочницкий А. Д. Обострение борьбы за раздел мира между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ими странам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1871–1898 гг.)//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Т. 1. М. 1973.
- Романов Б. А. Очерк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1895~1907. М. 1947.
- Романов Б. А. Россия в Манчжурии 1892~1906. Л. 1928.
- Лукоянов, И. Ф. Не остаток от держав : Россия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конце 19 – начале 20 вв. Нестро-История. СПб, 2008.
- Рыбаченок И. С.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Т.3. М. 2002.
- Аварин В. Я. Империализм в Манчжурии, М 1931.
- Игнатъев А. В. и Мелихов Г. В.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планах и политике России. Происхождение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Истор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и Конце 19–начало 20 века. М 1997.
- Игнатъев А. В. С.Ю. Витте-дипломат. М. 1989.
- 和田春樹 저, 이웅현 역, 『러일전쟁 : 기원과 개전』, 파주; 한길사, 2019.

3. 논문

- 김영수, “러일전쟁 전야 제정러시아의 극동정책”, 『사림』 22(2004); 21-41.
<http://uci.or.kr//G701:A-00054395999@N2M>
- 이항준, “러일전쟁 전후 극동총독부와 극동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해체”, 『사림』 82(2022); 385-417.
<http://uci.or.kr//G901:A-0010947210@N2M>
- 장은주, “동북아철도와 러일관계 1891-1904. 일본의 종단철도 계획에 미친 베조브라조프의 영향력”, 『역사와 담론』 제30집, 2001.

조호연, “러일전쟁의 원인과 베조브라조프 일파”, 『인문논총』 44집 (2017); 53-79.

<http://uci.or.kr/G701:A-00106292725@N2M>

(Abstract)

Bezobrazov's Far East Policy and Russo-Japanese Negotiations before the Russo-Japanese War

Lee, Hang-Jun

Bezobrazov formed shareholders of Yalu River Forestry Company centered on people who served in the Guards Corps or related to the imperial family to defend the interests of the imperial family, and he promoted Russia's Far East policy through the imperial family with the patronage of Nicholas II, while gaining political influence. Tsar Nicholas II also actively supported Bezobrazov to strengthen the autocracy. Bezobrazov supported the tyranny of the emperor and the governorship of the borders as the basic political system. Bezobrazov thought that an emperor-centered autocracy was the most suitable political system for Russia.

Ultimately, Bezobrazov supported the long-term plan for Russia to occupy Manchuria and make Korea a protectorate. Bezobrazov believed that Russia should build up its military presence in the Far East and then protect individual Russian companies with foreign participation. By the way, Bezobrazov argued that no company could actively operate in the Far East if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Ministry of Finance remained as it is today. Bezobrazov criticized Russia's bureaucracy and tried to carry out the Far East policy of the imperial family by directly negotiating with the finance minister, the military minister, and the foreign minister. As a result, Bezobrazov directly interven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Far East Government-General, drafted the Special Committee for the Far East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Far East's economic plan, and even prepared a plan for the formation of a plenipotentiary committee in Manchuria.

However, at the last minute of the Russo-Japanese negotiations, Bezobrazov proposed a plan to maintain Korea's independence without Russia

militarily occupying Manchuria in order to realize the 'Russian-Japanese alliance'. This was different from the basic policy of Bezovzazov's Far East policy, which was 'the occupation of Manchuria and the protectorate of Korea'. He intended to realize their own interests by establishing a 'stock company' while Russia occupied an economic advantage in Manchuria and Japan in Korea. In late December 1903 and early January 1904, Bezobrazov conveyed his idea to Kurino, the Japanese minister to Russia, to promote the actual 'Russian-Japanese alliance', and he suggested Russia's adherence to Manchurian interests and concessions on the Korean issue.

Bezobrazov accurately grasped the intentions of the political opposition in order to seize political leadership in Russia, but he failed to grasp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Japan's most important enemy, Korea and Manchuria policy, especially the Japanese military's preparations for the Russo-Japanese War. He was preoccupied with internal enemies and neglected to grasp information about external enemies. As a result, Russia suffered a series of defeats against Japan in the early days of the Russo-Japanese War.

Keywords : Bezobrazov (A. M. Безобразов), The Far East Government-General, Yalu River Forestry Company, Russo-Japanese negotiations, the Russo-Japanese War.

